

# Broken Things

#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지음  
김신근 옮김

# Broken Things

M.R. DeHaan, M.D.

©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2014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깨어진 것들

지 은 이 | M.R. DeHaan, M.D

옮긴이 | 김산근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7년 02월 20일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 6. 18. 제17-292호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번호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com](http://www.ilovekj.com)

표지사진 | 안성식

표지디자인 · 편집 | 장한디엔피

ISBN 978-89-89741-86-2

정가 5,000원

〈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 편집자의 글

이 책에 기록된 주제들은 수년 전 M.R. Dehaan 박사가 한 방송설교다. 후에 이 주제들은 여러 개의 다른 설교들과 함께 Broken things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했다.

이 책은 초기 버전과 달리 세부구조가 약간 변화되었다. 저자는 처음 4개의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짐(brokenness)”이 예배와 쓰임 받음에 필요조건이라는 교리를 세운다.

그 다음 6개의 장에서는 육체적, 정신적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룬다.

마지막 장에서는 영원이라는 배경하에 고난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룬다.

각 장의 내용은 설교로 전파되었던 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약간의 편집과 수정만 이루어졌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성경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인용하였다.

## 서문

Radio Bible Class의 협력사인 Discovery House Publishers에서 Broken things를 재발행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나의 아버지인 M.R. DeHaan 박사의 여러 책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중 하나인데 이는 이 책이 질병, 역경, 고통스러운 실패로 인해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이다.

이 책의 초본은 40년 전에 발간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으며 고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은 시대를 초월한다. 깨어짐(brokenness)에 대한 적절한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반면 깨어짐이란 주제는 현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압박을 준다.

새로운 독자들, 과거 판본을 감명 깊게 보신 분들, 이 책이 절판되었을 때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은 이 책이 다시 발행된다는 소식을 반길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건강과 부의 복음에 대해 가져야 할 균형을 제공한다.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사람은 아플 때나 건강할 때, 울 때와 웃을 때, 가난할 때와 번창할 때를 반복하는데 이러한 것은 전능한 왕이신 하나님의 관리하에 놓여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지 않든 모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20년간 집에서 주님과 함께하셨다. 그 사역의 효과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지속하고 있다.

이해심 깊으며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 아버지를 사랑한다. 아버지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안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린다.

만약 당신이 깨어진(broken)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일하신다. 그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 언젠가 당신은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 감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큰 시련과 비극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깨어짐이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득으로 바꾸신다.(M.R. Dehaan, Broken Things, p.19-20)

이 책은 고난 받는 많은 혼들에게 평안과 기쁨, 화평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Richard W. DeHaan  
Grand Rapids, Michigan



# 1. 깨어짐의 필요성

(The Need for Brokenness)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렘4:3)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이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이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고 헛된 것을 신뢰하여 적이 이스라엘을 파괴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두운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쉽고 편안한 것을 간구하였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축복을 효력도 없이, 발전도 없이 묵혀 두고 있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그들을 묵은 땅에 빗대셨다.

묵은 땅은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땅이다. 그 땅은 곡식과 과일을 생산하는 대신 잡초와 가시덤불로 덮였고, 재앙이 다가와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불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영적으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노력 없이는 축복이 없고 쟁기질 없이는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것이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인가가 깨어져야 한다. 집이 지어지기 전 나무가 반드시 베어져야 한다. 기초가 놓이기 전 바위가 오랫동안 조용히 놓여 있었던 채석장에서 깨어져야 한다. 익은 곡식이 땅을 덮기 전에 흙이 먼저 완전히 갈아져야 한다. 쟁기의 날로

잔디를 제거하며 씨레로 흙을 곱게 갈아야 한다.

생명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 기쁨이 있기 전 반드시 슬픔이 있어야 한다. 태어나는 아기의 괴로운 울음 소리로 인하여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이 흘러 넘친다. 우리 주 예수님의 깨어짐에 대한 원칙은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이것은 자연의 영역에서의 법칙이며 또한 이는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깨어짐 없이는 만들어짐도 없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깨어짐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장들에서 다룰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무너진 세상을 살고 있다. 이전에는 없었던 세상, 영속적인 것이 상실되고 인내심이 무너져 내린 세상이 되었다. 정부와 체제와, 이상들과 체계들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도 마찬가지로 깨어짐의 연속이다.

먼 과거의 지루한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기억들이 생각나는가! 마치 안개 드리운 그림자처럼 그 기억들이 삶을 형성하고 구성하고 있다. 아이들이 웃으며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눈물로 얼룩진 채 망가진 채로 버려진다. 얼마나 일찍부터 인생의 깨어짐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약속과 희망의 깨어짐,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이루지 못한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정을 이루고 평안과 휴식을 꿈꾸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어진 것들에



대한 눈물이 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의 기대는 그의 가슴에서부터 한순간에 거칠게 찢겨져 나간다. 아마도 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일하며 평생을 바쳐 왔던 그의 아내나, 그의 건강, 그의 가정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 깨어짐이란 삶에서 흔히 일어나며 어떤 사람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어짐이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유용하게 만들고 계신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쓰라린 상실을 겪거나 신체상의 질병으로 병상에서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슬피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롬8:28)

만약 당신이 실망 또는 사별로, 고통이나 연약함, 병약함으로 깨어져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자. 무너짐은 우리에게 재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기회이다. 우리는 깨어진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쓰레기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지지 않은 것들을 쓸모 없는 것처럼 던져 버리신다.

## • 깨어진 항아리 (BROKEN PITCHERS)

이 진리를 밝히고 현재 깨어져 있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깨어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히 다루시는 데 유용함을 보여주는 많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사기 7장에서 우리는 잘 알려진 기드온의 이야기를 본다. 그는 여

호수아의 죽음 이후 6번째 사사였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심한 곤경에 빠진 상태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제해 주실 것을 바라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구제하셨는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 야간에 적군 진영을 둘러싼 뒤 기드온은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렸다.

“나와 및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이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되는 때에 진영 밖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막 새로 파수꾼을 세우므로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있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세 무리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등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외치되,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는”(삿7:18-20)

향아리를 손에 든 채로 기드온과 그의 신실한 300명의 용사는 미디안인들과 싸워 드라마틱하면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기록은 친숙하다. 기드온은 주님을 따라 적과 싸우기로 하였다. 약 32,000명이 모였으나 이 자원자들 중 300명만이 적합하였다. 이들과 함께 기드온은 야간에 적군 진영을 포위했다. 그들은 손에 나팔과 횃불이 숨겨진 향아리를 들고 있었다. 그들의 대장으로부터 명령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토기 향아리를 깨서 빛이 어둠 가운데 나아가게 하였다. 그들이 나팔을 불 때 적군은 300명이 아니라 300개의 부대에 둘러싸인 것 같았다. 그 효과는 엄청났다. 두려움이 적군을 휘감았으며 그들은 야간에 대오가 무너진 채로 도망쳤다.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이다.

우리는 그 승리에서 활용된 향아리를 관심 있게 보고자 한다. 그 향

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었고 그 안에는 타오르는 횃불이 있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흙으로 된 그릇이다.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축복과 생명의 말씀을 담아두셨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분과 함께한다면 불가능은 없다. 그러나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는 우리에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빌4:13) 하심과 같이 진실이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었다. 그 불과 횃불은 성령의 힘과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빛과 능력의 유일한 근원이신 성령께서는 반복적으로 불로 표현된다. 불은 성령의 많은 성경적 상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빛은 토기 안에 들어 있었다.

토기는 사람의 육신에 대한 상징이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 포도즙으로 변화했을 때 그것은 즐거움과 구원의 상징이었다. 과부가 소량의 기름을 부었을 때 모두 채워진 것도 토기였다.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 주시는 분의 토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최선의 상태에 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의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는 성령을 부여 받았으며 그로 인해 모든 믿는 자 안에는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전능하신 성령이 거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 범위 안에 놓여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신자들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능력은 내버려두고 있다. 그 능력은 거의 빛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여 있다. 그러나 기드온의 날에는 횃불이 거기 있었다. 그러나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는 어떠한 빛이나 승리도 없었다. 항아리가 깨진 후 빛이 나아갔고 적군은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

우리는 어떻게 깨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자주 깨어진 삶의 슬픈 현실을 비통해하며 한탄하는가. 그러나 오직 깨어진 것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진 뒤에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빛 가운데 사는 것과 빛 안에서 걷는 것이다. 빛을 가지고 또 그것이 빛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삶이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나갈 것이다(요7:38). 빛은 항아리 안에 있다. 그러나 승리하고 능력을 얻고 싶다면 항아리는 깨어져야 한다.

## • 깨어진 몸 (A BROKEN BODY)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고전11:24)

이 구절은 바울이 주의 만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올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시련과 고난의 때에 큰 평안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의 몸의 깨어짐 없이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다.

하나님의 현명한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열매 맺도록 사용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12:24)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 안에 “깨어짐”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삶의 여정을 묘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깨어져야 한다. “은줄이 풀리고…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는 순간까지 삶을 사는 모든 기간 우리의 삶의 길에는 깨어진 것들이 흩뿌려져 있다(전12:6).

인지능력이 형성되는 어린 나날들부터 사람은 깨어짐의 세상 안에 있다. 부서진 장난감 앞에서 울고 있는 아이, 부서진 썰매나 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어린이, 깨어져 버린 신뢰로 인한 청년의 슬픔은 이 깨어짐의 세상에서 흔한 것이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그녀의 아기가 다루기 힘들 때마다 마음이 깨어진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리라고 믿는 아내는 그가 사람이 밤 늦게 오는 것을 홀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깨어지고 자신감은 무너져 내린다.

삶의 길에는 한때 원하고 바랐던, 행복한 꿈을 꾸게 한 희망과 기쁨들의 조각들이 놓여 있다. 당신의 사랑의 꿈 같은 존재였던 아이가 당신의 꿈을 깨어버릴 수 있다.

당신이 꿈꾸던 사업이 실패했다. 날이 갈수록 더더욱 많은 깨어짐이 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이 와서 노인이 깨어짐으로 인해 비틀거릴 때 그는 이 깨어짐의 세상을 뒤돌아볼 것이다.

## • 깨어진 세상 (A BROKEN WORLD)

깨어진 가정,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신체, 깨어진 건강, 깨어진 서약, 깨어진 삶들 - 세상에는 얼마나 슬픔이 많은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순전히 자연의 행로이다. 깨어진 것들은 사고들과 재앙을 시사한다. 우리는 깨어짐들을 실망과 실패와 연관 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앞에 발생하는 이런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훨씬 좋고, 아름다운, 더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귀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재앙 같은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실망이라는 것을 모르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기에 어떠한 것도 그분을 놀라게 할 수 없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그분의 경륜과 의지에 맞춰지도록 계획하신다.

당신은 오늘도 병상에서의 고통 또는 거절당하거나 남용된 사랑의 쓰라림으로 인한 슬픔 마음으로 인해 깨어졌는가? 여기에 당신을 위한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비록 당신은 지금 알지 못하지만 만약 당신의 깨어짐이 결국에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 • 본성과 은혜 (NATURE AND GRACE)

은혜는 언제나 본성과 반대이다. 본성의 영역에서는 첫 번째 것이 첫 번째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영역에서는 “첫 번째가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본성은 어린 자가 나이든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혜는 말하기를 “나이든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말한다. 본성은 말하기를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 위에 주인이 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은혜는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한다.

만약 당신이 실망, 사별, 상실, 고통, 아픔으로 인해 깨어져 있다면 이런 깨어진 것들을 우리는 재앙이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는 유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입증하는 예시들로 가득하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얻기 위해 깨어진 것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시편에서 우리는 깨어짐과 깊이 뉘우침의 토로를 볼 수 있다. 사무엘기는 왕의 식탁에 앉은 이의 깨어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사사기는 300명의 손에 있던 깨어진 항아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손에 있던 빵의 깨어짐을 읽을 수 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치료받게 할 때 부서졌던 천장에 대해 이야기한다. 누가복음에서는 깨어진 옥합을 볼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어 깨어진 가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준 찢겨진 그물과 부서진 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나무에 달린 우리 주님의 깨어진 몸을 보고 그가 그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고전11:24) 이러한 예들에서 깨어짐은 목적이 있다. 결국 모든 경우에서 깨어짐의 고통은 빨리 잊히고 그로 인한 축복이 더욱 나은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

## • 깨어진 법 (A BROKEN LAW)

성경에서 언급된 많은 깨어진 것들 중 우선 하나님의 깨어진 율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하시고 바다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한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그것은 사실이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돌판에 자신의 손으로 율법을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셨다. 율법이 적힌 돌판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얕은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있을지 모르나 그 돌 자체는 그 지역에 널려 있는 다른 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 돌 위에 적힌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세가 그 율법을 미쳐 백성에게로 가져오기도 전에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만다.

모세가 산기슭에서 돌판을 던졌을 때 율법이 깨어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황금 송아지를 원하고 그 주변에서 춤쳤을 때 이미 율법을 깨뜨린 것이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가시적 증명인 것이다.



## • 이스라엘은 죽어야 한다 (ISRAEL MUST DIE)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율법은 결코 구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하늘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 이미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단 한명의 죄인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수 있다. 율법은 은혜의 필요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러한 율법은 완전하면서도 거룩하며 의롭다.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 의지의 완전한 표현이며,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죄인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죄를 지은 혼은 죽을 것이다.”가 율법의 언어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말한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 중 하나라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율법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어길 것임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할 것을 예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가 그의 완벽한 법을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사람 즉 그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 즉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깨어져야만 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한 율법의 깨어짐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어떠한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깨어진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성막 (THE TABERNACLE)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율법이 적힌 돌판 옆에 성막의 표본도 가져왔다. 성막은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율법에는 자비가 없다. 율법은 그것을 어기는 모든 사람에게 처벌을 요구한다. 그렇기에 만약 율법 이상의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로 인한 구속의 표본인 성막을 알려 주셨다.

성막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특별히 지성소에 있는 한 가구에 의해 예표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형상화한 언약궤이다.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궤로, 안에 금을 입힌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궤 안에는 다른 언약들과 함께 모세가 깨뜨린 돌이 아닌 깨어진 율법이 들어있고 이스라엘이 어긴 율법을 담고 있는 두번째 돌판이 들어 있다. 율법은 심판과 저주 그리고 죽음을 위해 주어졌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울부짖는다. 그것이 죽음의 사역이다.

## • 긍휼의 자리 (THE MERCY SEA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 두셨다. 비록 그들이 율법을 어겼지만 성소 안에 율법의 깨짐 위에 긍휼의 자리(mercy seat)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다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한 해에 한번 대제사장이 성막 밖(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에 있는

제단에서 피를 취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긍  
휼의 자리에 뿌리며 죽음과 심판 그리고 저주를 요구하는 깨어진 율법  
위에 엄숙히 뿌린다. 그 후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세키나(하나님의  
현현)로 구름 안에서 지성소로 내려오신다. 그분께서는 죄인의 영원한  
죽음을 요구하는 깨어진 율법을 보시는 대신에 피를 보셨다. 그 피가  
율법을 덮었다.

피를 요구하는 율법(피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음)은 피에 의해 충족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지나가리라”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피 아래 있는 그분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셨다(출  
12:13).

## • 내가 피를 보았을 때 (WHEN I SEE THE BLOOD)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화해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 의해 깨어졌고 이는 큰 재앙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  
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대속하는 보혈의 필요성을 알려주  
시는 그분의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신  
다. 그분께서는 항상 의로우시며 거룩하시고 죄인을 책망하시고 죄를 벌  
하신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당신을 책망  
하기 위해 존재하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이를 구원하기 위해 십  
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의 몸이 깨어질 대속의 어린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단 한곳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보혈 아래”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라고 하셨다(히9:22). 그렇다. 깨어진 율법은 깨어진 구원자를, 그리고 깨어진 구원자는 깨어진 마음을 필요로 한다. 깨어진 것을 통해서만 축복이 올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깨어짐 없이는 구세주가 될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어진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 • 당신은 깨어져 있는가? (ARE YOU BROKEN?)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깨어져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기 전에는 구세주가 되실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성막에서 거룩한 기름부음에 사용되는 기름의 재료 중 일부는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것의 향이 퍼질 수 없기 때문에 사용되기 전에 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을 보게 된다.

“그것에서 얼마를 곱게 뺏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출30:36)

향수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 향기가 퍼져나갈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깨어지기 전까지 그분께서는 구세주가 될 수 없었다. 한 알의 밀알인 그분이 깨어져 땅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될 수 없다.

친구여,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당신을 구원해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가? 오직 그의 몸이 깨어져야, 즉 그의 피가 흘러나오

도록 해야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당신은 보혈 아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의 저주로 부터 구속 받았다. 만약 당신이 보혈 아래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여전히 저주 아래 놓여 있다.



## 2. 부서진 지붕과 부서진 배

(A Broken Roof and a Broken Ship)

마가복음 2장에서 우리는 마비된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하여 집의 지붕을 허문 네 명의 사람에 관한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 네 명이 도달하기 전에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이 집 밖에도 많이 모여 있었기에 문을 통해 예수님 근처로 가는 것이 어려웠다.

가버나움에는 죄로 가득한 삶 때문에 끔찍한 병에 걸려 고통 받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희망이 없었다. 그는 걸을 수 없었다. 그는 주 예수께로 가까이 갈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네 명의 친구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고, 같은 축복을 누리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불쌍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나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오늘날이 두렵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바쁘지만 그분의 축복받은 얼굴 앞에 나올 만큼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죄인들을 향한 그들의 의무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 • 네 명의 남자와 한 죄인 (FOUR MEN AND A SINNER)

그들이 먼지 가득한 길로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가? 그들은 마치 들것처럼 생긴 엠블런스를 임시로 만들고 불쌍한 자를 누였다.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왔을 때 주 예수님 근처에 많은 군중이 모여 있어 이 무기력한 죄인을 그분께로 데려갈 어떤 방법도 없었다. 얼마나 큰 재앙인가!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죄인을 그리스도로 데려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날들을 살고 있다. 신자들은 여러 교단과 계파 가운데,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지 성경을 옹호하고 교리의 중요한 관점들을 파악하느라 주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이며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에 관하여는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즉시 가르침을 멈추시고 더 중요한 불쌍한 마비 환자의 구원과 치유 사역에 임하신 것이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내렸음을 증명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오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께서는 남자, 여자, 소년, 소녀 모두 우리가 주님께 데려와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명령하셨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아픈 것이 아니다. 그는 죽어 있다. 죽은 사람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아무 도움 없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없다. 부자가 그의 아들로 인해 주님께 나아 왔기에 그의 아들이 치유 받았다. 마비환자를 연못(베데스다)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38년간이나 누워 있어야 했다. 나사로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리고, 무덤 입구의 돌을 치웠기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몸을 일으키셨다. 네 명의 사람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무리보다 마비환자에게 더 관심이 있었기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 네 명의 사람이 그의 상태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 마

비환자는 그의 죄와 질병 가운데 죽어야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도 뉴욕시의 5번가에서 수많은 밀을 수확하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그리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밀을 수확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시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며 씨를 뿌리는 그의 발에 관심을 두어야 그 수확을 늘리신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도움과 땅과 재물과 사역 없이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다른 이를 통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분은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고 하신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롬10: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을 얻기 위한 두 가지 필요한 것을 위임하시고 주셨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다. 만약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며 즉 오직 우리만의 잘못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축복된 진리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복음을 알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깨어진 지붕은 이 사람을 주 예수께로 데려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이 마비환자를 돕고 싶은 열정으로 인해 다른 모든 문제들을 제쳐두었다. 그들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없었고, 창문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붕을 통해 길을 만들었다. 이 일이 군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일부가



투덜거리며 “저 미치광이들이 이 회동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기뻐하셨음이 틀림없다.

그들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마도 주님께서 중재하셨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지붕은 열렸고 침상이 군중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병들어 누운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늙은 대머리 위선자가 투덜거렸고 가장 먼저 빠져나왔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자. 그분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다.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말씀 강의를 중단된 것에 대해 꾸짖지 않으셨다. 집회의 엄숙함이 방해 받았다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 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 들어,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막2:5)

여기서 두 단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들의 믿음 (their faith)”이라는 두 단어이다. 마비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다. 나는 남자나 여자나 각각 본인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본인의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믿음 부족(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해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유럽으로 복음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감히 신뢰했던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였으며 그런 바울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

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충분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놓여 아프리카의 심장부로 전해져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는 하나님께서 해외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당신이 그곳으로 가기에는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죽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마비된, 죽어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면 집을 박차고 나오도록 도우소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머리 위에 안락한 지붕을 두고 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해 벌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노력을 들여 우리 자신을 위한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못된 목표와 이기적인 노력들을 잊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도록 지붕을 ‘부술 수’ 있는 열정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그 분께서는 하늘에 집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두 버리고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으며, 멸시 받으시고 거부되셨으며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하여 갈보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가셨다.

여기에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는지 바라보는 시야를 잃어버렸다. 죄는 실재이다! 지옥은 실재이다! 위험은 실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우리 발 밑의 장소보다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을 더 신경 쓴다.

부모들이여 당신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고 싶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들이 거둬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보다 일시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결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분노가 충만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받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에 너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자녀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크게 기뻐하면서도 그들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에는 그저 눈물 몇 방울만 흘릴 뿐이다.

하나님, 물질주의와 세계적 이기심이라는 지붕을 깨고 하늘로부터 대답이 올 때까지 지붕을 열어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그리해야 하는 것만큼 진지하지 못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깨어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혼을 향한 주님의 동경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 • 깨어진 배 (A BROKEN SHIP)

바울은 카이사르에게로 후송되어 가는 죄인 신분이었다. 출발 몇 주 전, 배의 선장은 바울의 권면과 경고를 무시한 채로 로마로 배의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2주간의 폭풍으로 인해 조난당했다. 결국 배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고 파도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볼 수 있다.

“남은 사람들 중 얼마는 널빤지에, 얼마는 배의 부서진 조각들에 의지하게 하니라. 이처럼 그들이 다 땅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니라.”

(행27:44)

그가 탔던 배가 튼튼한 배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원들이 그

계절에 뱃길을 잡은 것은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기에 충분한 배였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만든 배도 하나님의 폭풍을 이겨낼 수 없다. 여기에 그들의 배를 믿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있다. 전도자는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한다. “가지 말라, 폭풍이 오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배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나서 배 밖으로 던져질 때까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삶의 바다를 건너갈 배를 만들어 안전하게 반대편으로 도달하고자 한다. 이런 현상은 어느 곳에든 존재한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가 안전하게 항해하게 해줄 배를 만들려는 사람들의 욕망과 시도들을 증언해주고 있다.

선한 일, 도덕심, 자비, 자선활동, 문화, 세련됨, 정직, 금욕주의, 우애, 정치 등 사람의 모든 구명난 배(수단)들이 모두 동원되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 위에서 유토피아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모든 배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폭풍이 다가올 때 이러한 모든 배들은 파선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이 구절들에서 선원들은 남풍이 불어올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태양이 비칠 때 이 배들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만 폭풍이 오면 모두가 파선하고 만다.

죄인들이여, 하늘에 있는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가? 당신은 스스로 만든 배를 믿고 있지는 않은가? 이 배는 하나하나 바위에 부딪혀 부서질 것이다. 당신의 삶, 그리고 업적 또한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당신의 의(義)는 더러운 겔레와 같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딤후3:5)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롬4:5)

죄인이여 당신은 믿었는가? 당신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노력은 절대로 당신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당신은 그 배가 얼마나 비싸든, 그 배를 얼마나 아끼든 간에 반드시 그것을 버려야 한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부서진 배의 파편에 올라 땅에 도달하였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득을 대변하는 오래된 배를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배로 인해 구원받지 못했으며 배가 부서짐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만약 배가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떤 파편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요5:24)



### 3. 깨어진 빵들과 찢긴 몸

(Broken Loaves and a Broken Body)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보게 된다. 모든 정황은 매우 시사적이다. 3일 동안 군중은 주님의 복된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가 주님을 따랐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굶주린 군중은 전도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사람은 그들의 마음의 필요보다 배고픔을 더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걸맞은 것을 준비하셨다. 물론 그분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시거나 덩불로부터 빵들을 자라나게 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이 불가능해 보인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어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들은 아직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분과 제자들이 잠시 먹을 만한 양이었지만 절대로 그 이상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했다.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에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사도들에게 건네 주셨다. 사도들은 이것을 군중들에게 나눠 주었고, 모든 이들이 먹고 남게 되었다. 그들이 남은 것들을 모았을 때 일곱 광주리가 꽉 찼다. 빵이 백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기적은 또한 비유이다. 우리 또한 광야에 거하고 있다. 땅은 메마르고 황폐하다. 이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것을 찾는다.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거처로서 만들어졌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그분을 끌어안도록 만들어졌다.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둥근 세상이 결코 삼각형인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한다. 언제나 구석에 빈 공간이 남기 때문이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궁핍한가! 권력욕이나 쾌락이나 모두 부족한 무언가를 향한 인간 마음의 울부짖음에는 헛된 답변일 뿐이다. 이런 가난하고,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나는 그들을 빈 상태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는 사도들이 한 것처럼 말한다. “우리가 어디서 이 모든 이들을 먹일 것을 구하겠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신다. “너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나눠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저희는 오직 일곱 개의 빵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망 가운데 대답한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작은 것을 주면 내가 이것을 나누어 너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백 배로 돌려줄 것이다.”

사건이 이루어진 순서에 주목하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께 드린다. 그분께서 작은 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후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해보자. 아직 복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한 유대인, 이방인들을 비롯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세상의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린 채 이들은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그 무엇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종교와 쾌락과 죄악과 방탕으로 돌아선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보라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픔을 진정시켜줄 잠재적인 약물과 엉터리 영혼 치유 등을 제공하는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다. 영화, 춤, 술, 밝은 불빛 등을 제공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들을 더욱 깊이 배고프게 하며 목마르게 하고 마음을 공허하게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복음, 선한 일, 자선활동, 교육, 철학, 그리고 여행을 통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계속 외치게 된다. 우리만이 그들의 굶주린 혼에게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의 손 안에 놓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께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 • 깨어진 빵 (BROKEN LOAVES)

빵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기 전에는 사도들의 것이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빵들을 드릴 것인가? 젊음이여 당신은 하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단지 당신만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요구하신다. 당신은 그분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그것을 나누어주사 죽



어가는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받아 들일 것인가?

당신은 삶에서 사업이 번창하거나 많은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을 희망한다. 당신은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좋은 것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과 돈과 인기와 기쁨을 제안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사역 가운데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혹은 또 다른 어느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섬김과 내어 드림은 이상이나 계획 또는 꿈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내게 네 삶을 다오!” 그럼 당신은 물어볼 것이다. “그럼 나는 뭘 가질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다. “만약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죽여가는 자들을 위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너의 빵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한 이들을 위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보아줄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제단에 바치고 난 후, 그리고 내게 유용한 의료기술을 버리고 지구 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인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아서 7개 광주리의 음식을 먹어 오고 있다.

찢긴 빵! 당신의 삶, 당신의 재능, 당신의 학벌, 당신의 이상들이 부서져 빵조각이 되었다. 말해보라!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 몇 사람에게 몇 개의 황금 빵들을 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건강과 물질적인 것들로 축복해 주셨다. 당신은 그것들의 달콤함을 조금씩 맛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었다. 당신은 수많은

이들이 생명의 빵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빵에 버터를 바르며 주님을 찬양했었다. 그래,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빵들을 드리며 감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분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썰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눅6:38)

하나님께서서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손에 몇 개의 빵을 맡겨서 그것이 나누어지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계신다. 우리는 잃어버린 흔들의 필요를 위한 비전 앞에 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라고 고백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쓰지만 끔찍하게도 그것에 대해 무언가 행하지는 않는다.

나는 찢긴 빵들, 무너진 마음들 그리고 깨어진 사람들을 간절히 원한다. 즉 그들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 무관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어져서 우리의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에 대해 깨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분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갖게 하라. 찬송 작가와 함께 이렇게 노래하자.

오 십자가가 내 머리를 들어 올리니  
나는 감히 당신으로부터 날게 해달라 청하지 못하네  
나는 인생의 영광을 흠에 내려놓아 죽게 하네  
그때 그 땅에서 붉은 인생 꽃피우나니  
그 생은 영원하리라.

## • 깨어진 몸 (A BROKEN BODY)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 앞에서 빵을 집어 그것을 쪼개며 이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께서 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법이 없다.

만약 이 페이지들에 있는 것들이 어렵다고,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눈을 들어 갈보리를 보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깨어진 것들은 죄의 결과이다. 만약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의 세상은 지금처럼 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깨어진 약속도, 깨어진 법도, 깨어진 신뢰도, 깨어진 마음과 가정과 희망도, 깨어진 몸도, 영도, 꿈도, 피 흘리는 상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깨어진 것들은 바로잡힐 것이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분께서는 모든 깨어진 것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깨어지도록 하셨다. 2000년 전 그분께서 오셔서 갈보리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미래에 완료될 구속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사역의 완성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의 몸은 또한 문자 그대로 깨어졌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깨어지셨다. 그들이 그분을 채찍질할 때 피부가 찢겨져 나갔고, 그들이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 그분의 복된 이마에 박히게 했으며, 잔인한 못으로 그분의 손과 발에 박아 나무에 매달았고, 그들이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분의 고통의 실재와 죽음에 대한 증거로 물과 피가 그분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왔다. 나는 그분께서 식탁 앞에서 손으로 빵을 집으시고 말씀

하시느 것을 본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깨어지기를 요청하신다. 우리가 이 질그릇을 깨어서 그분의 빛이 비추도록 하기를 말이다. 사도들도 이 진리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롬12:1)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몇 개의 빵과 물고기를 그분께 내어드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증가시키시고 우리에게 돌려주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요청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서 도망할 수 없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16:15)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 우리가 만든 그 지붕들을 깨뜨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기존의 틀을 뒤엎기를 요청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것을 깨어 그분께 드리는 예배로써 그분의 머리 위에 붓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찢긴 그물의 교훈을 배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죄인인 당신이 자신의 의로 가득한 배를 버리고 주님께서 깨어지신 십자가로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계신다. 만약 바울의 동행자들이 배에 남아 있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었을 것이다. 그들의 구원은 배를 떠나는 것에 있었다.

우리는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없다. 회개로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깨지기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께서 쓰실 만한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때 우리는 그분의 위로의 약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약속은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16:33)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시34:19)



## 4. 깨어진 옥합

(A Broken Vase)

우리가 성경에서 깨어진 것들에 대해 공부해가다 보면, 각각의 조각들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마가복음 14장에는 향유 옥합을 주 예수님의 복된 머리 위에 붓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씀에 대해 많은 추측들이 가능한바 이 구절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마가복음에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의 기록이라 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른 이들은 이 마리아가 죄의 삶 가운데서 매우 놀랍게 구원받은 죄 많은 여인이라고도 말한다. 우리는 무엇이 맞는지 여기서 확정하지 않겠다. 성령께서 그녀의 이름을 이 구절에서 우리 앞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만약 우리가 그녀를 주님께 의해 용서받은 죄 많은 여인이라 생각 하더라도 별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부분에는 이 향유 옥합이 예수님이 계시던 날들의 여인들, 특히 부정한 목적을 위해 아름다워지고자 한 여인들에 의해 심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설명이 들어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 말씀을 더욱 교훈적으로 만들어 준다.

여기에 죄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여인이 있다. 그녀는 온갖 치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다. 이는 쉽게 먹이를 낚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때 어떤 한 남자가 그녀의 길을 지나쳐갔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였다. 그분께서 그녀를 떠나가시기 전 그녀는 그분의 권능에 의해 구원받고 깨끗해졌으며, 그녀의 비참하고 부끄러운 죄의 삶이 영원한 영광의 노래로 바뀌었다. 선이 악을 이겼고, 영광이 부끄러움을 몰아냈다.

이 일은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제 그녀는 주님께서 곧 떠나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그녀가 죄 많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녀의 구속자의 머리 위에 부었다. 죄의 삶에 바치던 것을 그분께 바쳐 헌신한 것이다.

얼마나 큰 교훈인가!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얼마나 세상을 섬기는지 기억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절제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마귀를 섬기고 있다. 너무 늦은 때도 없다. 어떤 대가도 너무 크지 않다. 어떤 희생도 너무 비싸지 않다. 우리는 세상의 잠시 동안의 기쁨을 위해서 소비하고 또 소비될 의지가 있었다. 우리는 값비싼 향유를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죄 많은 친구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것이 되셨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이 마귀에게 줄 수도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교육받은 지식, 그리고 재능은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희생하던 자유와 낭비하던 것만큼의 향유 옥합을 취해 그분의 머리 위에 부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회심하기 전 새벽 1시가 되도록 카드를 칠 수 있었던 것과 수영장이나 볼링장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이제는

당신은 교회 예배가 너무 길다며 불평하고, 집에서 라디오로 설교를 듣다가 언제든 원할 때 꺼버린다. 우리는 경기들과 파티에서 얼마나 소리치며 열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소리를 내는가?

당신은 즐거움과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 돈을 쓰던 것을 기억하는가? 단지 푼돈이 아닌 수많은 돈을 하루 저녁에 써버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 옥합이 돈으로 가득 차 당신 앞에 놓여 있다더라도 당신은 뚜껑을 열어 그분께서 흠향하시도록 하지 않을 것이고 대신 그것을 당신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보관할 것이다. 사역의 필요성은 간절하며 절실하지만 당신은 조심스럽게 옥합을 닫을 것이다. 거둬낸 신자들이 구원받기 전 그들이 마귀를 섬기던 것처럼 마음껏 주님을 섬기기를 나는 얼마나 바랐던가!

그 옥합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이제 이 여인이 한 몇 가지 일들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집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녀의 행동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옥합의 덮개를 제거하고 그분의 머리에 스푼으로 향유를 붓거나 혹은 모든 향유를 그분의 머리에 붓고 병을 가져다가 그녀가 그것을 다시 채워 자신에게 바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병을 깨뜨렸다. 그녀는 그 병을 꺾으로써 다른 사람이 병에 남은 내용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없애버렸다.

당신은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겠는가?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행동은 그녀 스스로 최후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 고려되고 성화된 행동이었다. 옥합은 오직 한 번만 부서질 수 있고 다시는 수리할 수 없다.



부서진 향유 옥합과 닳은 삶들이 얼마나 많은가! 현실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대부분 삶을 살면서 어디에서든 그들이 깨어져야 하는 위협과 시험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그들은 새로운 힘을 받아 그것을 바깥으로 전할 수 있게 된다.

확신하건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옥합을 한 번, 그리고 완전히 부수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 축복이라든지 두 번째 절대적 은혜 사역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양보하고, 깨어진 것들을 그분의 앞에 내려놓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여인은 옥합을 찼다. 여기에 전통양식에 의해 방해 받는 것을 거부한 여인이 있다. 내 지식으로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나 그녀가 위대한 이유는 그녀가 감히 달라지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의 일들을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방식들은 너무 오래 행해져 와서 누군가 감히 그런 이끼 낀 듯한 고전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초신자나 건방진 광신자 취급하곤 한다. 그러나 역사는 누군가가 달라지고자 했을 때 진행되어 왔음을 알려준다. 조지 헛필드가, 그 어떤 건물도 설교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다고 보고 밖으로 나가 설교를 했을 때, 그는 어리석은 괴짜였다. 어떻게 밖에서 축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들어본 적도 없어! 비합리적이야! 교회야말로 축복의 장소이지 않은가? 그러나 헛필드는 밖으로 나갔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부흥 중의 하나가 세상을 뒤덮었다.

달라져 보라!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되어 보라!

그 여인은 옥합을 깬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마지막 행동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녀는 이 행동이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없이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임을 알리고 싶어했다. 마르다는 섬겼으나 오직 그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시몬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나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행했다.

오늘날 우리 예배의 대부분은 어떠한가? 그것은 그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인가? 주 예수님, 그분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 앞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분의 손은 쪽 뻗어 못 박혀 있다.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보라.

당신이 그분을 위해 한 일들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과 비교되기 시작할 수 있는가? “오” 당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맞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음,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맞다.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말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위해 유용하다. 당신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찬송을 부른 적이 있는가? 당신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가?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열정인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한 것인가? 당신이 교회 사무실에서 섬기는 것은 당신이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신이 목회자를 돕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그분을 위해 하는 것인가?

나는 이따금 내가 한 일들이 오직 그분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해왔던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가 이곳에서의 나의 사역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 안에서 고통 받고 땀 흘리며 일하였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보다 주님께 더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여러분보다 내가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은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몸에 있는 모든 원자가 하나 하나의 사람이 되어 그 수백만 명이 모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께서 내게 해 주신 것만큼 그분께 돌려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 5. 우리는 왜 고난을 받는가?

(Why We Suffer?)

내가 들어본 가장 위대한 설교는 설교 강대상이 아닌 병상에서 들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위대하고 깊은 진리들은 종종 설교 사역 준비와 교육의 결과물들로 설교하는 사람보다 고난의 사역을 통해 겸손한 혼을 가지고 경험적으로 하나님 방식의 깊은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의해 밝혀지곤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활기찬 사람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주목 받지 못하거나 통증 또는 고난을 동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은 장밋빛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환경 요인으로 인해 집이나 심지어는 침상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그런 환경에 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방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반면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건강한 사람들이며 불평할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나의 마음을 몇 번이고 새롭게 해주었던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 기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고난을 인내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씌워주실 특별한 보상과 관(crown)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교리는 사무엘상 30:24에 기록된 사건에 의해 제시된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용사가 적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200명은 지치고 기진하여 뒤에 남았다. 아마도 무언가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었을 것이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전쟁의 열기 속으로 투입된 사람들의 물건을 보호하도록 뒤에 남겨두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400명의 용사는 뒤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만 나누어 주고 대부분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은 사무엘상 30:24에 기록된 영존할 교리를 말하였다. “...오직 싸움에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삼상30:24)

물건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간과되지도, 잊히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절대적이고 특별한 보상을 마련해 두신다.

만약 당신이 질병으로 인해 병상에 있든지, 또는 통증이나 절망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과 다음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바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 • 고난은 사탄을 잠잠하게 한다 (SUFFERING SILENCES SATAN)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자녀들의 경험을 사용하신다. 아마도 그 중 가장 좋은 예시는 욥일 것이다. 욥은 부자였지만 영적이며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해두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신실한 사람이요 완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그가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 물질적인 소득과 이익을 얻었기 때 문이라고 고소하였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에 그의 손을 대고 재산과 가족을 취할 권리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 결과 사탄은 잠잠하게 되었다. 욥은 그로 인해 투덜대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쓴뿌리를 가지기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주신 분도 주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1:2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시험과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적수들과 마귀를 잠잠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고통을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병상에 여러 번 함께 있을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오직 인생의 밝은 시기에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는 적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나는 당신을 수년 동안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병상으로 데려가 줄 수 있으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소를 보게 해줄 수 있다. 그 미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오직 시련의 교과과정을 통해 훈련 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한 명의 “사탄을 잠잠케 하는 자”라면 그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자.

-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  
**(SUFFERING ENABLES US TO GLORIFY GOD)**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앙과 고난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허락하시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귀하고 사랑 받는 친구였던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구세주께서는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먼 곳에서도 능히 그를 낫게 할 수 있으셨으나 나사로가 죽는 것 외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자매에게 복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그의 죽음을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과의 대화 중간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라고 하셨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요11:5)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친구들 중 하나의 죽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부활,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이 경험하였을 부활의 기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는 것을 허락하셨다.

- **고난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와 닮게 만든다**

**(SUFFERING MAKES US MORE LIKE CHRIST)**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이것이다: 그분께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을 구원하여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고 당신이 죽었을 때 하늘로 데려가시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목적은 단지 구원을 제공하고, 형벌을 피하고 삶이 끝났을 때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보다 더욱 넓고 깊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귀중한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은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거나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가도록 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형상이 되도록 정하셨다.

자, 주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어떠한 믿는 자도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것과 같은 깊은 고난들 없이는 그리스도와 같게 될 수 없다.

히브리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10) 히브리서 2장의 마지막 절도 읽어보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히2:18)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분을 따라야 함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외형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갈보리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둠과 고난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요,”(빌3:10)

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이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리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지 못하며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리

예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노래,

집에서나 밖에서나

온종일 예수님과 같이 되리

나는 예수님과 같이 되리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그분이 이끄는 대로 기꺼이 따라가게 될 것이다.

-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한다**  
**(SUFFERING MAKE US APPRECIATIV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에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삶의 밝은 시기에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떠나버리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 자주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집에서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할 때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 전과 사역에 감사해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나 감사의 글을 쓴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당신은 라디오 사역에 감사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깊은 감사의 감정은 아니다. 당신이 아마도 사고나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인한 병으로 인해 침상에 눕게 되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거나 다른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섬김과 예배는 라디오 방송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당신은 당신이 건강했던 시절에는 축복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우신 예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주시는 셀 수 없이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SUFFERING TEACHES US TO DEPEND UPON GOD)**

고난이 허락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혼란이 유인돼,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종종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야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사30:15)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 여러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주님께로 돌아가는 대신 그들은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과의 동맹을 택했고 특히 이집트에 의지하였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힘이 민족들이나 그들의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얻을 터이나”

여러분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당신의 일과 가정과 사업에서 당신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

신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일이 잘못 될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당신은 빠지면 안 되었고 조용히 있을 시간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성급했고 초조하며, 서두르며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때 주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시고 쉬게 하실 것이다. 당신의 사업, 당신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일들은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다. 당신 없이도 마치 당신이 있는 것처럼 잘 지내는 것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그렇다, 그날이 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들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보게 하심을 알게 된다.

나는 내가 이 어렵지만 위대한 교훈을 배웠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한 교훈은 우리의 자존심이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해내실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인이 뒤에 있는 상황에서 바다 앞에 섰고 사막과 산들이 각각 그들의 옆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잠잠하라, 그리고 주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을 하고 계심을 가르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깨달음인가! 성경은 말한다. **“그때에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슥4:6)

당신은 하나님께 매인 사람 중에 하나인가? 당신은 이러한 어려운

교훈들을 배웠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풍족할 것이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라도 그분의 놀라우신 다루심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임을 나는 안다.



## 6. 고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훈련한다

(In Suffering We Exercise Faith)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하나에 5달러였던 철제 막대가 일반적인 말발굽으로 만들어지면 10달러가 된다고 한다. 만약 똑같은 이 5달러짜리 막대가 바늘로 만들어진다면 가치는 350달러가 되지만 섬세한 스프링이나 값비싼 시계로 만들어진다면 가치는 25만 달러가 된다. 이 평범한 철제 막대가 꺾여서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지고 열처리를 거쳐 망치질 되고 세공 되며, 쪼아지고, 두들겨진 후, 마무리와 마감작업을 통해 마침내 섬세한 작업을 위해 예비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연관된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예정된 것에만 그분의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깨닫자. 농부는 작물을 재배할 희망이 없는 사막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는 가장 풍성한 수확물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혼자 두고 떠나시며 어려움이나 시험, 시련과 함께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황량한 것임을 확신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한다. “항상 햇빛이 비추는 곳은 사막이 된다”라고. 우리는 햇빛이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름과 어두운 날, 폭풍과 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앞에서 언급한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욥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욥이 “내가 그분이 가실 길을 안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라고 한 것을 깨닫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어한다. 우리는 베일을 벗혀 모든 과정을 보고 싶어한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방법을 알고자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욥은 그의 깊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와 대답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아신다는 진리로 인해 평안함을 찾았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가 자신 있게 말했다. 그 후 그의 믿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었다. 그리고 그가 마치 머나먼 미래를 본 것처럼 그는 외쳤다.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조용히 앉아 있어야 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가장 시험적인 방법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갈망할 때, 우리가 열정적이며 밖으로 나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 심지어 극적인 것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비활동적인 곳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조용하고 잠잠한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다. 다윗은 말했다. **“오직 싸움에 내려가는 자의 몫**

이 물건 옆에 머무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삼상30:24)

이전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시련의 결과들을 몇몇 알아보았다. 이 장에서 오직 시련과 고난, 그리고 박해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교훈들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알아보기로 하겠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롬8:24, 2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신다. 이는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강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신체 영역에서 얼마만큼 진리인지 알고 있다. 우리가 신체와 근육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라나려면 그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훈련되지 않은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 것이다; 시험 받지 않는 믿음은 결코 강해지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11:1)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무가 나의 눈앞에 보이거나 새소리가 내 귀에 잘 들릴 때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때



에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으로 누워있다면 당신은 물을 것이다. “내가 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가?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당신이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임을 믿어야 한다. 당신은 찬송과 함께 이에 대한 확신을 구해야 한다.

나는 나를 둘러싼 주변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소망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볼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젠가 나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눈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게 될 그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또 다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벧전4:12-13)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친다**

**(SUFFERING TEACHES US PATIENCE)**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루실 필요가 있음을 알아보았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롬5:5) 이 구절은 다른 구절에 이어 나온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롬5:3)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풍성히 겪었기에 “우리가 또한 환난도 기뻐하나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 바울이 환난 중에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음을 알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

졌기 때문이니”(롬5:3-5)

인내는 오직 견뎌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믿음과 같이 우리의 인내심이 시험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인내를 배울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난과 고난, 시험을 통해 얻는 많고 많은 결과와 교훈 중 하나는 이것이다. 우리가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 **고난은 우리를 동정심 있게 만든다**

**(SUFFERING MAKES US SYMPATHETIC)**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데 효력이 있느니라.”  
(고후1:3-6)

주님께서 삶을 만들고 다듬어 가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을 느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를 동정하지 못하면 결코 남을 동정할 수 없다는 진리를 안다.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동정심과 그들이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편없는 위로자”

라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안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갈망하는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가 구세주와의 필연적 만남을 통한 생명을 얻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섬김 공동체를 함께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교제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들을 나누며 새로워짐과 평안함을 느낀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교제의 달콤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 대화를 하려 하거나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할 때, 그 시간들과 순간은 얼마나 지루하며 그러한 잘못된 종류의 공동체는 얼마나 소모적인가!

신체적 질병에서도 같은 것이 적용된다.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평안함과 화평,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지혜롭고 이해심 있게 말할 줄 알며,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시험의 골짜기를 통과하였기에 그들이 말하는 부분이 시험에 있어 어디쯤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언급하는 것을 부드럽게 말하는 바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실이다. 내가 병중에 있고 활발했던 사역으로부터 떨어져 누워 있어야 했던 날들에 나를 방문했던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진심이었으며, 정직했고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나의 짐을 덜어주고 기분을 밝게 하며 그들의 동정심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내가 그 경험들을 돌이켜 볼 때 나는 이 친구들을 두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나를 도와준 친구와 나를 방해한 친구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 거칠게 비난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 중 첫째로, 그들 나름의 최선으로 나를 대했으나 내가 견디고 있는 것들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몰랐던 친구들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통증과 고통 그리고 두통과 발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들이 가고 난 후 나는 구약의 읊과 같은 말을 하게 됐다. “그들 모두가 형편없는 위로자들 이야”

그러나 비록 말은 많이 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었으며 그것은 매우 달콤하고 귀하며 도움이 되는 말들이었다. 고통을 통해 동정심에 대해 배워가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 잠시 멈춰서 가장 큰 동정심을 베푸시는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아시는 한 분만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정하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모든 시련의 골짜기들을 앞서 지나가셨다. 그분께서는 가난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남는 것이 어떤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목마른 것을 아시고 지치는 것도 아신다. 그분께서는 적으로부터 모욕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씨름하며 밤을 지새 보셨기에 밤새워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험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만 승리하셨다. 그분께서는 로마 군사에 의해 갈보리에서 그분의 귀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시나이까?”라고 외칠 때까지 고통 받으셨기에 통증으로 고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을 맛보기 위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둠과 위협을 짊어지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들여야 함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바로 오늘, 시험에 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히2:10, 18)

오, 고난 받고, 지친 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



## 7.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Making Us What We Ought to Be)

고난의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가지 가장 우선적이며 기본적인 교리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간단하게 말해 이것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히12:6)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8,29) 28절과 29절을 동시에 인용한 것은 나는 그 두 구절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익숙하겠지만 그 다음 구절을 제대로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그 다음 구절이 없이는 불완전하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확장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나와 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역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시편 84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지체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

믿는 자가 겪게 되는 일반적인 삶의 경로가 환난 중의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울 또한 우리가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기본적인 방식임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고난과 환난, 박해로 인해 고통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열매 맺음과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분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이전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귀를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순결케 하며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우리를 동정심 가득하게 만들며,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임을 보았다.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무궁무진함을 깨달았는데도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들을 더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징계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풍성하고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 **고난은 우리를 계속하여 겸손하게 한다**

**(SUFFERING MAKES US AND KEEPS US HUMBLE)**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실패하게 된 이 유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시험의 불길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교훈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 아마도 성경에서 이와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일 것이다.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는 그가 “육체 안의 가시”라고 표현한 신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추측하였다. 일부는 바울이 그가 회심한 날에 시력을 잃었던 결과로 인해 안질을 얻어 고난 받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 다른 사람은 그가 꺾추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일부는 그가 언어장애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라리아로 고난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중 어떤 것이 맞는지를 결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종에게 이 “육체 안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들어갔을 때 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였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되는 계시를 얻었다.

이제 그의 경험은 놀라운 것이었으나 바울은 마지막에 완전하게 될 자로서 그의 안에는 즉, 그의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한 경험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헛된 영광과 육신의 자랑을 갈망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고후12:7-10)

이러한 바울의 말들에 부가적으로 더할 말은 별로 없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그의 “육체 안의 가시”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 만약 그가 그의 겸손함을 잃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는 ‘삶의 안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

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임을 아신다’라는 것이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지만 그분의 대답이 항상 “Yes”는 아님도 알아야 한다. 때때로 그분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그분의 대답은 “No”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다.

고난을 받으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응답해주시지 않는지에 대해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관점을 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은 구세주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아버지여 만일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할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한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의 그리스도인 사역 초기에 나는, 미처버려서 체포된 사람에게로 불러간 적이 있다. 우리가 들판에서 그를 붙잡은 뒤에 그가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그의 부인에게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그 총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박사님 당신이 가져가시는 것이 낫겠어요. 나는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총과 총알을 가지고 나의 집으로 가져 왔다. 나는 그것을 내 책상 서랍 속에 넣고 점차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5살 된 나의 아들 리처드가 나의 서재를 뒤지다가 이 권총과 옆에 있던 총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가 한 손엔

권총을, 다른 손에는 총알을 들고 나에게로 달려오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아빠 내가 무얼 찾았는지 보세요! 내가 이걸 가져도 돼요? 가져도 돼요? 자, 부모라면 내가 어떻게 했을지 다 알 것이다. 그는 나에게 그 총을 줄 것을 간절히 구했으나 나는 총알이 탄창에 하나라도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에 순식간에 그것을 빼앗았다. 그리고 난 후 아이에게서 총알도 마저 빼앗으며 말했다. “안 돼, 안 된다. 리처드. 너는 이 총을 가질 수 없어, 이것은 너에게 너무 위험하단다”

나의 아들이 이해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그것을 요구했다. 마치 그날 그 아름다운 총처럼 그가 더 원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순간 그가 자신에게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물건은 오직 그 총뿐이었다. 그는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기에 그 아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비록 그 당시에는 나의 단호한 거절과 나의 대답인 “No”가 그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그가 성장한 지금 그는 그 당시 자신에게 최선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 동료들이여, 우리가 이와 다르다고 보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다. 우리는 이해와 합리의 영역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우리는 그분께 종종 우리가 그것 없이는 안 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며 요청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단호히 대답하신다. “안 돼, 안 된다 나의 아들(딸)아 나는 너의 이 요청을 거절해야만 한단다. 나는 네가 너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것을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단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우리가 그분을 얼굴을 마주보며 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

**(SUFFERING TEACHES US TO PRAY)**

나는 여러분 중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진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는 말에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기도의 능력을 무시한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기도자는 가장 큰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의 사역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단지 기도하며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요”라고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 **고난은 보상을 가져다 준다**

**(SUFFERING BRINGS REWARDS)**

고난의 사역에는 많은 결과가 있으나 이 장을 마무리하며 다루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고난을 통한 특별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알다시피, 그리스도인의 섬김, 구령,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등에는 보상이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해 인내하며 고난을 받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관(crown)-특별한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

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딤후 2:12)

인내하며 고난 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섬김과 통치와 권능과 권위의 장소가 있다. 다음에서 베드로가 기록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4:12, 13)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음을 볼 수 있다.

어떤 이가 이에 대해 적절하게 말한 것이 있다. “강철은 철과 불이 더해진 것이다. 흙은 바위와 깨어짐이 더해진 것이다. 아마섬유는 아마와 함께 실을 빚으로 빚고 두드리는 것을 반복해서 직물을 교차하며 만들어진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과 고난이 더해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어야 할 바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분만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방식은 불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 불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다.



## 8. 왜 그대는 낙심하는가?

(Why Art Thou Cast Down?)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이기지 못하리니 이로써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시41:11)

낙심한 신자는 비정상적인 신자이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적절한 삶의 관점을 배우지 못했으며, 그가 삶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영광과 보상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비정상적이다. 반면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슬프게도 많은 믿는 자들이 다윗과 같이 행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음으로 인해 낙심하고 비통하게 불평한다.

확언하건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 구속 받은 사람들만큼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사람은 없다. 성경은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젠가는 우리가 땅의 상속자가 되며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속히 오시리라 한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지상에서 통치할 것이기에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다.

## •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ALL THINGS ARE OURS)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부와 소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물을 갖는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 금과 은과 산과 들의 모든 가축들이 모두 그분의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의 상속자들이다.

그분의 아들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도 그분의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다. 그는 죽음의 속박을 깨고 일어나셨으며 오늘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곧 그분께서 모든 율법과 권위와 권능을 밭 아래 두시며 이 땅을 완전한 의로움과 정의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오순절, 우리에게 내려오셨으며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 자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우리의 것이다.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하나의 무한한 인격이신, 이 축복받은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다.

구원은 우리의 것이다. 성화도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기쁜 그날을 기다린다. 고통도 죽음도 죄도 없이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새 몸을 받는 그 날을 말이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지침, 아픔, 통증, 슬픔, 이별, 죽음과 죄 지음이 없을 것이다. 영원토록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무한한 것들을 즐기게 될 것이다.



## •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WE SHOULD BE HAPPY)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에 의해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이 앞에 놓여있는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것은 언제나 그러하지는 않다. 다윗처럼 우리는 너무 자주 외치곤 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다윗의 경험은 때때로 우리 모두의 경험이며, 이러한 경험들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들에 관하여 공부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경험임을 발견한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을 수 밖에 없는 몸 안에 거하며 시간과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 또한 여전한 사실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영웅들조차 어둠과 절망의 시기가 있었음을 보게 된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눈을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시험을 통과하였을 때 얻을 영원한 결과로부터 멀리 하였을 때 그들 또한 부르짖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보내신 기근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도피하였을 때도 사실이었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이집트로 향하였고 비극적인 결과를 받아 들게 되었다. 모세 또한 좌절의 시기가 있었으며, 엘리야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승리를 얻은 후에 이사벨로 인하여 낙심하여 죽기를 바랐다. 선지자 요나와 예레미야에게 또한 절망의 순간은 있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조차도 어두운 시기들을 보내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표들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

## • 골짜기 안에 있던 다윗 (DAVID IN THE VALLEY)

이 장에 나오는 시편의 구절에서, 다양한 감정을 가진 사람인 다윗은 그 스스로가 한번 더 우울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 하느냐?” 그가 그의 어두운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다윗은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들어보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시3:1-2)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늘이 낯색으로만 들여져 그분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또는 그분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불평하는 사람의 잘못이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마음 안에 불안과 의심들이 가득 찬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불평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해결 방안이다.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기에 질문과 대답, 진단과 치료, 불만과 해결방안이 있다. 영적 의사로서 나는 먼저 혼의 낙심을 진단한 뒤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방안을 적용할 것이다.

## • 낙심의 원인 (THE CAUSE OF DESPONDENCY)

사람들의 낙심들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첫째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있으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모든 종류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육신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사실은 우리가 또한 다양한 감정에 지배를 받으며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혼을 가졌다는 것이다. 내가 짊어내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의 혼은 지속적인 성화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육신은 구세주가 오실 때 완전한 구속과 영광스럽게 됨을 입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이 옛 몸 안에 거하여야 하고 우리는 이런 싸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 • 진단 (THE DIAGNOSIS)

우울함과 낙심을 초래하는 원인 중 첫 번째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결국 무덤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승리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삶의 밝은 면만을 바라볼 정도로 긍정적인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어떤 사람들은 풀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그 상태로 무덤에 묻히게 된다. 그들은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우울한 상태로 태어난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론자라고 부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

천적으로 특별한 성향을 고려하고 계신다. 유전적인 성향과 어린 시절의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 그들의 본성은 꼬이게 되었고 삶을 향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의 다양성으로 인한 결과로 그러한 사람은 삶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분홍빛과 장밋빛으로 보이는 모습들도 그들에게는 암울해 보일 뿐이다. 만일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의 본성과 선천적 성향이 바뀌게 된다고 말하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도 옛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새 사람을 주시고 새로운 본성도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새 사람도 오래된, 구제불능의 부패한 본성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내려놓고 그것을 지배하에 두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옛 사람은 옛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요3:6) 그리고 또한 언제나 육체일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씨름해야 할 옛 본성과 옛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새 본성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싸우게 된다. 그것이 마음에 지속적으로 새기고 있어야 할 점이다. 모든 새로운 사람은 두 사람이다. 즉 옛 사람과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은 여전히 옛 성향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새 사람은 완전한 거룩함과 무죄함 안에서 창조되었다.

## • 예표들 (SOME EXAPLES)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예표들이 있다. 불 같은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얻은 위대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옛 사람의 낙심에 굴복하여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성급한 성향이 있어 즉석에서 폭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가 구원받고 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급한 베드로여서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어야 했으며 나중에는 심지어 바울에 의해 공개적인 꾸짖음을 들어야 했다.

도마는 회심한 후에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가 구원받은 후에 그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옛 도마였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과 창 자국을 직접 보기 전에 믿기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런 분류에 속한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 아마도 당신 또한 우울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일들이 당신에게 어둡게만 보일 것이고 당신은 주변 상황들을 심각하게 보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나는 그러한 자세를 지지하지 않는다. 반대로 나는 당신이 그러한 성향을 이겨내기를 바란다.

첫째로 주님께서 당신이 그 승리를 두 배로 어렵게 하는 성향과 싸워야 하는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점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문제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 스스로의 느낌보다 더욱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 • 육체적 연약함 (PHYSICAL INFIRMITIES)

낙심을 초래하는 두 번째 요인은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이다. 우리의 혼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져 있어 우리 혼의 느낌은 우리 몸의 상태에 긴밀한 영향을 받는다. 영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우리 혼의 성향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 위에 놓여 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육체는 우리의 혼과 느낌과 삶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문제점이 온전히 육체적인 것이며 의사가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이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목회자를 찾아오곤 한다.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영적인 문제들로 생각되었던 수많은 경우들이 실제로는 의료의 영역에서 육체적 질병이나 연약함의 결과였던 경우가 많았다.

반대의 경우 역시 진실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영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인한 것을 육체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백하지 않은 죄들로 인해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의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다.

오해 받고 싶지 않은바, 나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아픔이 모두 자백하지 않은 죄들의 결과라고 한 순간도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더 적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많은 아픔과 질병이 자백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바울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 어떤 의문점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고린도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고전11:30)**

바울 사도는 특별히 주의 만찬에 대한 교훈적 입장에서 삶에서의 죄를 돌아보기를 거부하고 특별히 그들 스스로를 빛 가운데 살피지 않는 믿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그의 삶에 죄가 있음을 알고도 이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제거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손을 대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분께서는 그 사람에게 연약함과 질병을 보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만약 그가 그의 불순종과 반항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그를 차라리 죽게 하여 집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를 알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보아야 하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내려 놓아야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가 주님의 의지 바깥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행복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낙심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계속하고 믿는 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정신적, 영적 요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당신은 낙심해 있는가? 당신은 다윗처럼 외치는가?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라.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라. 혹시 그 안에 반역과 불순종의 영이 있지 않는가? 당신의 삶에 죄악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해결방안을 선택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고 난 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께 구하고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느낌이나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기억하라.





## 9.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

(God's Pattern in Our lives)

다윗은 그가 시편 42편을 기록할 무렵에 깊은 절망의 골짜기 안에 있었다. 그가 그 스스로를 돌아보고 악한 자가 번창하며 의로운 자가 고난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낙담하였다.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울고 애곡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시42:3)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다루심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그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기억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가 가장 깊은 괴로움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윗에게는 주님께서 깊이 잠드신 것처럼 보였고 그의 슬픈 상태나 깊은 우울함에 대하여 전혀 모르시고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시편 44편에서 그는 울부짖는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쏙혀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시44:23-26)

다윗은 분명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모든 것들은 어둡게만 보였다. 그의 기도는 응답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계시고 의도적으로 그로부터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였다. 우

리가 우리의 눈을 주님과 그분의 현명한 섭리로부터 멀리하고 우리의 고난들에만 두었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생각들은 얼마나 악한가!

그 후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적이 그를 대적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네가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네가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던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제 네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여기 앉아 있는데 너는 불평하고 신음하며, 울고 애곡하며 불만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구나.” 그는 모든 희망을 버리기 직전이었다. 그때 그는 적절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무엇이 그의 우울함을 유발하는지 깨달았고 그의 고난과 어려움의 유일한 치유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 **우울함을 초래하는 많은 원인들**  
**(MANY CAUSES OF DEPRESSION)**

이전 장에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경험하게 되는 우울함의 원인들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히 영적이지 않다. 우리는 여전히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 몸은 사람이 갖는 모든 약함과 통증, 고난의 상속자인 반면, 혼은 다양하며 변화하는 감정과 느낌들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관에 자주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구속을 얻기 전까지 육체의 연약함과 혼의 유혹과 맞서 싸워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선천적인 우울한 성향으로 인

해 낙심하고 우울해 있음을 쫓았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성향을 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삶의 심각한 부분들을 걱정한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성향들이 새 본성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의 영적 세계관과 혼의 기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육체적인 연약함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일 때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이것은 사업가, 특히 그리스도인 사업가에게 사실이다.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다. 나는 몇몇의 경건한 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나빠 보일 때에도 항상 행복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에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가 통증과 열로 인해 고통받을 때보다 건강할 때에 주님을 찬양하기 쉽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육체적 질병이나 아픔으로 인한 영의 깊은 우울함과 영적 불만으로 인해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목회자의 상담보다 의사들의 조언이 더 필요한 상태였다.

나는 특별했던 한 경우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성도였던 그녀는 성령을 대적하여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스스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거의 미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 목회자 저 목회자를 찾아 다니며 방황했으나 어두움은 깊어갈 뿐이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혹시 정신적 우울함의 원인이 신체적인 곳에 있지 않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의사를 방문할 것을 권하였다. 검진을 통해 그녀가 심하게 감염된 치아로 인해 점차적으로

고통이 심해져 왔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치과의사가 원인을 제거하였고 3주 후에 그녀의 우울증은 사라졌으며 그녀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모든 정신적, 영적 우울증의 경우에 치아 발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몸의 상태가 우리의 혼과 삶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 • 노란색 창문과 노란색 세계

### (YELLOW WINDOWS AND A YELLOW WORLD)

어떠한 질병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질병은 긍정적인 세계관을 동반하는 반면, 다른 것은 비관적은 세계관을 동반한다. 우리는 결핵, 특히나 폐결핵이 보통 밝은 성향으로 비취지는 반면 당뇨병 위와 간의 문제는 불평과 우울증의 예비신호로 비취짐을 알고 있다.

나는 잘못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내가 당신이 이런 선천적인 성향들을 극복하는 것을 더 잘 도와 줄 수 있도록 어떠한 요인들을 마주 대하도록 권면하는 바이다. 만약 당신의 혼이 간부전으로 인해 낙심해 있다면 기도와 함께 몇 알의 칼로멜을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전신에 황달이 있다면 당신은 혼의 창문을 통해 세상이 황녹색으로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깊은 영적인 우울증으로 인해 고난 받아 죽고자 했던 한 남자는 풍족한 식사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다. 이 남자는 당신도 알듯이 엘리야이

다. 그는 정말로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살기 위해 도망쳤고 매우 지쳤으며 기진맥진하게 되었다. 그는 향나무 아래에 누워 주님께 죽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엘리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풍족한 식사와 긴 잠이며 그 후에 너는 괜찮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풍족한 식사를 준비하셨다. 엘리아는 숙면을 취했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갔다. 그는 광야로 나아갔고 주님을 섬기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수년간 살았다. 죽기를 원했던 남자는 죽지 않았다. 그가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 • 정신적 질병 (MENTAL DISEASE)

육체적 연약함에서 드러났던 사실은 정신적 연약함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겪는 고난의 해결책이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머리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떠한 정신적 질병들은 우울증과 절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의 고난은 영적 본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불평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하는 데 있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함으로 인해 발생한다.

첫째로 나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수많은 의심과 영적 우울함의 가장 큰 원인임을 강조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삶에 죄가 있다면 기쁨과 승리가 있을 수 없다. 아마도 그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적인 우울과 절망

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의 하나님을 단지 사랑과 동정심의 하나님이라고 왜곡하여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이 실제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배웠기 때문에 깊은 우울함의 애가와 의심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삶, 율법을 지킴, 힘써 일함, 걱정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어느 날 그들이 상대적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행복해한다. 그 다음날 그들이 실패하였을 때 그들은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다시 잃어버려진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의 일부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두 가지를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며 우리의 선함과 사역, 종교, 성공,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패할지라도 그들이 간단한 자백을 통해서 씻음을 얻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1:9)

## • 사별과 슬픔 (BEREAVEMENT AND SORROW)

우울함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은 사별과 슬픔이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자신이 삶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병상 옆에 있거나 심지어는 관 옆에 있을 때보다 당신의 가족이 잘될 때가, 즐거워하기 쉽다. 그 때가 바로 마귀가 죄 가운데 살고 있거나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겪지 않는 것처럼 당신을 속이는 때이다. 그가 말할 것이다 “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만약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다윗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시편 73편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시73:2-7)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느냐? 하는도다.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도다.”(시73:11-14)

정말 이곳에 문제가 있었다. 다윗이 악한자들이 얼마나 번영하며 의로운 자들이 고난 받는지를 보았을 때 그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시73:16)

그러나 그는 다음 구절인 17절에서 알아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시73:17-18)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로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종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시73:27-28)

“때에야(until)”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다윗이 과거를 둘러보았을 때 두 가지를 보았다. 첫째로 악한자들에게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만 달을 수 있는 영광을 예비하심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루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미래와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밝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시 동안 고난 받는 것이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그냥 지내도록 하신다. 그 길의 끝에는 그들을 위한 심판과 지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의 것인 당신이 영광을 위해 예비되도록 지속적으로 일하신다.



바울이 말한 것을 기억하자.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후4:17-18)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한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현재와 즉각적인 것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붓질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밝은 점들과 어두운 배경으로 된 그림과 같은데 모든 요소가 완성된 작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암울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어두운 조각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들은 조각 퍼즐을 닮았다. 여기에 어느 곳에도 맞지 않을 것 같은 검은색 조각이 있다.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또 여기에 더 밝은 조각이 있다. 조각 퍼즐의 어떤 부분은 어두운데 우리 중 일부는 검은 조각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순간에 울며 애통해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전혀 연관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모든 조각들을 가지고 각각을 적절한 위치에 배열시키신다. 그제서야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들어 보라. 이 모든 것이 예비된 때에야 아름답게 완성된 형태를 이루는 것을 보면 퍼즐의 어두운 조각이 밝은 조각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마음을 다잡으라. 아버지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신

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성숙하기 전까지 그의 아버지(세상에서의 아버지)가 매를 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고전13:12)



## 10.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다

(He Will Not Fail Us Now)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마주할 때까지 그는 세상을 이길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것이 확실한 만큼 그분께서는 또한 당신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선한 일들을 당신 안에서 시작하실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께서 왜 우리가 많은 어두운 경험들을 통과해야 하는지 항상 설명해 주지는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도록 발전하고 훈련되기를 원하신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의 불평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사악한 자들이 매우 번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과 시련을 겪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는 절망스런 상태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겸손히 앉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우울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법이자 승리이다.

나는 지난 장들에서 우리의 기분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는지를 짚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짐으로써 겪어야 하는 다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분과 삶을 보는 세계관에 관련되어 있다. 그것들은 자주 우리로 하여금 울부짖게 한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 모두에 대한 위대한 치유자가 있다. 그분께서는 치료법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건들에 대한 진단을 다룬 후 우리는 이 장에서 당신에게 치유를 보여주려 하였다.

다윗의 시에서 5가지의 잘 정의된 단계들이 있다. 만약 이것을 잘 따른다면 그들 또한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즐거움과 승리를 거둘 것이고, 모든 세대에 걸쳐 고난 받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해 기록될 것이다.

**1.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다윗은 잘못된 것을 첫 번째로 기억했다. 시편 42편 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 내는도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난들과 그의 눈물과 고통, 사악한 자의 속임수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가 그 스스로의 고난을 기억할수록 그의 기분은 점점 나빠졌다. 그러나 그가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라고 세 번째 외치고 난 후 시편 43편 5절에서 다윗 안에 변화가 있었다.

“오 하나님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 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 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시 44:1-3)

그렇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의 날들에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했다. 그들의 어두운 날들과 경험들이 많았으나,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셨다. 다윗은 또한 이 시편 44편에서 그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가 아니라 산 정상에 있었을 때 그가 기록했던 시편 34편을 기억했어야 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시34:19)

친구들이여 이것이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다. 멈추고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는가? 며칠간 어두웠던 것은 맞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실패하셨는가? 나는 당신이 뭐라 대답할지 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실패하게 하지 않으신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그분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2. 말씀 읽으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주님의 말씀의 기록으로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록을 읽었을 때 그의 혼이 치유되었다.

나는 모든 연령의 그리스도인이 겪는 우울과 절망의 많은 부분이 그들이 너무 그들의 고난에만 사로잡혀 있고 말씀의 귀중한 약속들에 태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의 사역 중에 내가 특권을 얻어

알게 된 승리했던 고난 받는 자들 안에서, 시험과 고난 중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승리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발견했다. 나는 질병으로 인해 수년간 병상에 누워있는 한 인쇄심이 많은 고통 받는 자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행복함과 완전한 평안을 나타낼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음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좋은 때에 너무 바빠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빠했던 그 일들을 제쳐둘 수 있게 하신다.

**3. 기도하라.**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많은 기도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 나는 많은 기도라고 말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식사 시간처럼 정해진 때에 드리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권할 만하나 그것이 우리의 기도생활의 전부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해질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딱 하나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 중 많은 수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구석에 몰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깊은 정직함을 가지고 울부짖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고통 받는 자들은 항상 가장 훌륭한 기도자였다. 전 세계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을 그들의 가정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병상에 오르게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기도자들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수년이 지나도록 이 존귀한 성도들

을 일으키시지 않고 병상에 두시는지 의아해한다. 왜 그런지 아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기도하는 전사들의 그 위대한 군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 중 많은 사람을 뒤에 남겨져 있게 하신다. 만약 그들이 건강하다면 많은 다른 의무들로 인하여 그들의 기도 시간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다 그들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공에서의 짐,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신실한 남겨진 자들은 개인적인 짐을 지게 된다. 그러나 그 둘은 모두 효과적인 기도의 공간이다.

**4. 믿음과 소망을 가져라.** 다윗이 했던 불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보자. 그는 말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시43:5)

그는 효과적으로 주장한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는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고난이 심각해 보이지만 잠시일 뿐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언젠가 다시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목회자의 소박한 철학을 좋아한다.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그것이 지나고(It came to pass)’이다. 나는 그 구절을 좋아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큰 평안을 준다. ‘그것이 지나고’ 그렇다 나의 모든 고난은 지나간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철학

이나 효과적이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지나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현명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일은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알아가야 할 바이다.

미래의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이다. 신비를 푸는 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소망은 그분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하다.

세상은 주님을 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이 종종 어둡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경험들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의 오심과 보상을 주실 것에 대한 관점 안에서 판단한다. 바울이 말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고전4:5)

이것은 매우 귀중한 진리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 때에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환경을 기초한 보상을 그분으로부터 받을 것이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판단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기회들도 판단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난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겪은 싸움들을 고려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쉬웠음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러한 지식도 계산에 넣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듯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고난을 겪을 때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쉬움을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것도 계산에 넣으실 것이고 고난을 겪었을 때에도 기뻐한 사람(후자)에게 더 특별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삶에 있어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병상에서 고통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겸손한 성도들이, 사역을 통해 수천명의 사람을 감동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본 일부 열정적인 목회자보다 더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목회자가 그의 영적 재산을 사치와 편의를 위해 낭비한 반면 병상에 있던 그 고귀한 혼은 비록 그의 이름으로 전도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고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하며 제한된 기회와 달란트를 사용하였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기회와 신실함에 기반하여 판단하시기에 하늘에서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주어질 때 나는 여러분의 그 고귀한 혼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의해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한참 뒤에나 앉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승리의 삶을 살기 쉬웠음을 기억하실 것이다. 삶에서 모든 것이 번창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보다 쉽다.

동행하며 도움을 주는 신실한 부인을 얻었던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쉽다. 거룩하며 이해심 많은 남편을 둔 여인들은 신실하지 않으며 술 취한 남편들과 시는 여인들보다 기쁘고 행복하기가 쉽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시 계산에 넣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 고용주 밑에서 일한 사람은, 저주하며 욕을 하고 신성모독적인 고용주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쉽다. 그리스도인 사무실이나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외설물이나 비열함, 저주가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공장이나 출판소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기 쉽다. 우리는 갈등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게 되나 만약 우리가 그들의 환경이 얼마나 도전 받는 상황인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면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성향까지도 계산에 넣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침착하다. 스스로를 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러한 자제력을 가졌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불 같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옛 육체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승리를 거둘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과 같은 성질 또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거둔 힘든 승리를 아신다. 승리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명백히 패배한 사람들이 겪은 것처럼 어렵게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보상이 주어질 때 재판장께서는 이 모든 것도 계산에 넣으신다.

그렇다. 사랑 받는 자들이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울부짖으며 말할 때 의미한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이다.

**5. 모든 때에 그분을 찬양하라.** 우리는 밝은 내일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오실 날이 곧 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다음 구절을 통해 아는 것과 같이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

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  
라.”(고전13:12)



## 11. 그분의 은혜가 족하다

(His Grace Is Sufficient)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후4:17-18)

어찌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받아야 하는가? 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아서 고난당하고, 괴로우며, 쇠약하고, 꺾이며, 극심한 명예와 무거운 짐을 져야 했는지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묻게 되는 질문이다. 성경은 그 답을 제시한다.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고난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비정상적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을 것이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괴로움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마귀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그분 본인의 성도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해지는 고난들에 순종해야 한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만약 당신이 오늘 징계받고 있다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기에 충분한 사랑을 당신에게 주시고 그분께서 당신을 절제하게 하시고, 훈련 받는 것 없이 표류

하도록 하지 않으심에 감사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고난 받고 매를 맞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견뎌내는 데 필요한 은혜도 내려 주신다. 바울이 그의 육체 안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세 번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12:9) 그러나 그 전에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믿는 자에게 좋은 것임을 밝히셨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미래의 영광과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잠깐 보여주었다. “우리의 가벼운 고난(our light affliction)”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자. 이 단어는 바울의 펜 끝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그가 회심한 후 견뎌야 했던 수년간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가벼운 고난(affliction)”이라고 말한 것에 놀라게 된다.

그가 회심한 날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난파당했으며, 매를 맞고, 몽둥이로 맞고, 비방당했으며, 위협당했고, 돌로 맞았다. 그는 가난했고 목마르며 굶주렸다. 게다가 그의 동포로부터 버림 받는 수치를 당했고 장소를 옮기며 괴롭힘을 당했고 육체 안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 그의 삶이 다하기 전 거짓 고소 당했으며, 감옥에 갇혔고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참수를 당했다. “이것이 가벼운 고난인가? 우리는 묻는다. “그렇다” 바울은 대답한다.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다.”

우리들 중 누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고난당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중얼거리며 불평하고 좌절하며 우울해지고 낙담하며, 우리가 있는 곳이 세상 다른 사람 누구보다 나쁘다고 느끼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 바울은 말한다. “그것은 가벼운 고난이다.”

## • 그것은 잠시일 뿐이다 (IT IS BUT FOR A MOMENT)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고난이 잠시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여 그의 상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그는 말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날 날 이후로 35년 이상 주 예수님을 섬겼다. 그리고 그는 그 35년간의 궁핍과 굶주림, 매맞음과 감옥살이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단지 “잠시” 라고 칭하였다.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지도 또는 열정적이지도 않았던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 바울이 경험한 것들로부터 도망치기를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길은 장밋빛과 햇빛이 비취야 하며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너무나 자주 생각한다.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다. 또한 욥도, 다윗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침례인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가치 있거나 발전시킬 만한 무언가를 보고 계시는지 의심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열매가 가득할수록 주님께서는 그것을 경작하고 쟁기질 하시며, 노력을 기울이실 것이다. 어떠한 쟁기도 황량한 사막의 모래를 찍지 않는다. 그러나 땅이 생산적일수록 더 많이 쟁기질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가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시련과 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이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그의 극심한 시련들을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 • 오직 불이 순결하게 한다 (ONLY FIRE PURIFIES)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만드시는 것이다. 요한은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요일3:2)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에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29)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려는 과정은 여기 그리고 지금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한 우리가 그분의 아들과 같지 않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속히 오시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느라 바쁘시다. 그리고 그것은 고난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령께서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고난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시험, 시련, 고난, 그리고 징계가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씻기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병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여, 당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깨달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아들과 같이 만들고 계시며,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현명한 섭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다.

## • 지금이 아니라 그 때에 (NOT NOW, BUT THEN)

그분의 고난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이곳 밑에서 받는 고난이 진실로 잠시 동안 받는 가벼운 고난으로 보일 만큼 그 고난에 대해 말할 수 없이 큰 영광과 함께 충분히, 완전히, 그리고 넘치도록 보상받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고난 받는 자의 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 중 가장 존귀한 관들 중 하나이다. 그분께서는 특별한 영광의 관과 연관시켰다. 야고보가 말한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冠)을 받으리라.”(약1:12)

베드로 또한 이것을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 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4:12-13)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을 준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진정으로 이곳 아래에서 인내심 있게 고난 받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 •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WHILE WE LOOK NOT)

바울이 우리의 주제가 되는 구절을 말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 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고후4:17-18)

18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바울은 우리가 의의 길에서 보면 우리의 고난은 가볍고 잠시 동안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가 현재의 관점 안에서 일시적인 그것을 볼 때 그것은 무겁고 고달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즉 보상해 주시는 때를 볼 때 우리의 고난은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당신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겠는가? 그는 말한다. “너의 시련을 영원과 미래의 영광의 빛 안에서 바라보라”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때에 우리가 인내심 있는 건담에 대

한 보상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한다. 영원에 비할 때 몇 년간의 고난은 짧은 것이다. 이런 짐들은 우리에게 밝혀질 영광의 무게에 비교하면 가벼운 것이다. 우리가 지금 치르는 대가는 우리를 기다리는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은 고난을 홀로 돌아보면서 낙심한다.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깨달으면 당신은 눈물 가운데서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 •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 (JESUS OUR EXAMPLE)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셨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한다.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예수님께서서는 매를 맞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고, 모욕당하셨고, 비웃음을 당하시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고난을 당하셨지만 모든 일을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기쁨, 영광에 이를 많은 아들들을 얻는 기쁨을 위해 하셨다. 어머니가 그녀의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 기쁨을 위해 통증과 극심한 고통을 견디듯, 예수님께서도 기쁘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바라봐야 하는 방법의 전부이다. 다가올 영광과

영원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돌아보면 그것들은 가볍고 “잠시 동안”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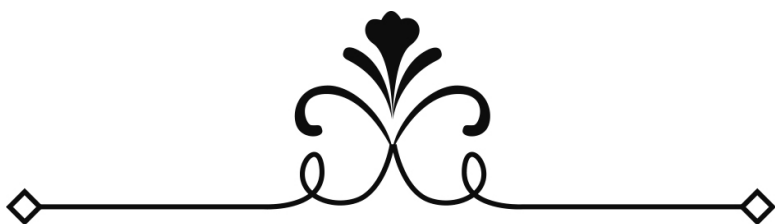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여 당신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럴 때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여전히 최선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무언가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 포도즙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포도가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바이올린의 줄이 마찰을 일으켜 고통 중에 울리지 않는다면 그 안에 음악이 있을 수 없다. 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되는 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자를 알 수 없는 다음의 시가 이 평안이라는 단어에 대해 기술한다.

우리가 우리 삶의 문들에서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의심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신비에 대한 열쇠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고 그 때가 올 것이다 불쌍한 마음이어  
하나님의 계획은 순결하고 하얗게 핀 백합과 같다  
우리는 단힌 잎을 찢어서는 안 된다.  
시간이 금으로 꽃받침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인내심 있는 고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에 닿을 것이다.  
지친 발과 풀어진 신이 휴식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알고 이해하게 되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할 것임을 안다.

## **Note to the Reader**

The publisher invites you to share your response to the message of this book by writing Discovery House Publishers, Box 3566, Grand Rapids, MI49501, USA. For information about other Discovery House books, music, or videos, contact us at the same address or call 1-800-653-8333. Find us on the Internet at <http://www.dhp.org/> or send E-mail to [books@dhp.org](mailto:books@dhp.org).



도서출판 킹제임스도서 목록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아훼'와 '야호'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6	13000
75	로마서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 DeHaan, M.D.	120	5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 5000원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롬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엠 .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 무엘. 김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둠의 법칙〉 / 라온누리

지은이

M. R. DeHaan (1891-1965)



디한 박사님은 27 년간 “라디오 성경 교실 (Radio Bible Class)”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호프대학교(Hope College)를 나왔고  
일리노이즈 의과대학 (University of Illinois Medical College)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웨스턴신학대학교 (Wester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유익한 20 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으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Our Daily Bread)”에 영적 성장을 돕는 수많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옮긴이

김신근

한림대 의학박사  
진리침례교회 성도